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合八頁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炳鎭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李灌鎔博士를 吊함

一

李灌鎔博士의 橫死에 對해서는 知與不知間에 한가지로 痛惜하는바다 氏에게 잇서서는 오늘날까지 把持하야온 堅確한 志操가 곳그 業績중의 하나이오 또그 性行中에서 高貴한것을 찻는다면 모든苦難을 甘受하면서 오즉社會와民衆을爲하야 奮鬪해온 그半生의歷史이다

氏는 일즉 壯志를 품고歐洲에 留學하야 新知識을 만히 吸收하고 다시 歐洲各國을遊歷하야 實地로 그社會政俗을 觀察해서 극히 他日活動의準備를 지엇다 그때는바야흐로 歐洲風雲이 수이고巴里和講가 열리어 世界恒久平和가 곳實現될듯이 萬國使節이 모혀드는 一九一九年이라 當時아즉 學生으로 心理學專攻에 沒頭하든그는 一朝에巴里로 뛰어나왓든 有名한逸話도 잇섯거니와 氏가歸國한뒤에는 延專에서 敎鞭을잡앗든 것이다

二

그러나 그는 研究로 始終한에는 너무나 實行的이오活動的이어서 畢竟 敎育界에서言論界에 進出하야 혹은 時代日報의 副社長으로 또 혹은 現代評論의 主幹으로 謂한言論을 通하야 抱負의一端을 發露하는 그筆鋒의光芒은 언제든지 社會民衆의 一大木鐸을 지엇지마는 氏가新聞人으로서의 異彩를 노흔것은 일즉 東亞日報特派로 新興露國을 視察한것과 또朝鮮日報特派로 新興中國을 視察한것이니 見識이 卓越한그는一隻眼을 具有하야 남못보는바를보왓스므로 그言論이 從日에와서 往往的中하게되엇다 一九二六年에 新幹會를 發起하고 總務幹事로 民黨의指導者가되엇스며 其後 民衆大會事件으로해서 四年동안 囹圄의生活을 보내엇다 最近 氏는 다시 操觚界에 投身하야 그得意의筆陣을 縱橫으로 버려극히 社會民衆에게 무슨補益이잇슬가하고 남모르게 만흔애를 써섯다

三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不幸히 우리論壇의驍將이오 民衆의鬪士인그에게對하야 吊辭를 發하게되엇스니 이런有爲의指導者를잃은것이 어찌朝鮮社會의 一大損失이 아니랴 하물며 그는 過去의 努力보다도 將來에 努力을 期待하든 少壯人物임이랴 社會上의 關係야 적은것이라 一般의 信望이 생길수록 그의將來에 期待하는바 적지아니하엿것지만 突然히 오늘날이 잇스니 참으로 哀惜함을 익이지 못할바이다 平生에 그와交分이두터운 知己와友人들이야 이를 쓰던 汗血의 結晶인 氏의遺業을 繼行하려는이 時에 吾人은 이로써 吊辭에 代하노라 ... 四十平生에무엇을 하엿는가

『심라』會商의 効果疑問

만체스터 商議電請을 印度政府側承諾

英本兩側에 最終決定權賦與

【電通『심라』十八日發】 印度政廳은 最著『만체스터』商業會議所로부터『심라』會商의結果로 日印通商上新協定을 日印政府當局間에서 決定할境遇에는미리英本國綿業關係者의意嚮을充分히考慮하여달나고電請한데對하야 十七日左와如한 承諾回答을『만체스터』로發하엿다 印度政府는日印兩政府가 綿業에關하야 最終決定을行하기前에 英本國의綿業代表에對하야 意見을陳述할機會를附與하기를約하는것이다

皇后陛下 御着帶式日內定

【電通東京十八日發至急報】 宮內省發表―― 御吉慶의御經過御順調이신 皇后陛下에서는 二十四日午前十時 葉山御用邸에서 御懷姙五個月의 御着帶式을行하시기로 內定하얏다

羊毛問題 懇談會를開催 外務次官邸서

【電通東京十八日發】 日本貿易政策의組織化를目的한輸出入當業者와外務當局과의官民聯合懇談會의第一回羊毛懇談會는十八日午後零時半부터 外務次官主催下에次官官邸에서開催되엿는데 外務 商工以外에當業者인毛織業者羊毛輸入商海運業代表諸氏等二十七名出席하야

一、米英加奈陀濠洲諸國은日本에對한主要原料供給國인데日本과의關係로보면 顯著한入超國임으로原料輸入에對하야 當業者가 相互連絡을取하야 此에對한政策을樹立할必要가 잇는것

一、右目的을爲하야當分間羊毛에對하야濠洲南阿南米各國市場의輸入原價及運賃等에對하야 利害考慮를再吟味할必要가잇는것

一、日本海運業者가實施하고잇는運賃政策에對하여도原料輸入業者側이採算的見地에서再考할必要가잇는것

에對하야 懇談한바意見이一致되엇슴으로 具體策은今後에더욱協力하야 研究하기로하고午後三時에散會하엿다 今回의成績에鑑하야 外務省은石油等에對하야도 近日綿花懇談會를開催할터이다

對英報復手段으로 南米進出策樹立

英國의印濠貿易에는大打擊

日英經濟戰去益猛烈化

【東京通信】 印度의日綿排斥을獨納하야 英帝國各自治領이 順次로日本物貨에對하야 禁止的關稅를加하야 猛烈한經濟戰을演出한것은衡質的으로 大英帝國의 日本에對한經濟封鎖다 하야舊同盟國인 日英兩國은國交關係에까지 危機를釀成하지아니할가念慮되는이때에 日本綿業側에서는 新販路의開拓을 南米方面에求하게되고 그代償으로 南米의羊毛를濠洲羊毛의代用品으로삼을計劃을세워 經濟戰은漸次激烈化할形勢다 『심라』會商의結果는 開催前부터悲觀說을가지는사람이多數이며萬一에 同會商이 決裂에 歸할때는 前記南米進出策이具體化될것이요 具體化가못되드라도『심라』會商에對한 威脅的運動으로의 効果가잇슬것이라 하는것이日本綿業者의 心臟인듯하다 昨年度의 濠洲의 對日本貿易額은 一億三千四百餘萬圓인데 其中에 八千四百餘萬圓이 羊毛나 南米의 產羊毛인 『아르젠틴』의 對日本羊毛輸出은 겨우 四十八萬圓에 不過한것이다 日本 綿業代表들은 이미 『아르젠틴』으로 觀察을 떠낫든바 綿製品과 羊毛의交換契約이 成立된다고하며 濠洲에 對하야는 直接的으로 對抗하게될것이니 濠洲는 日貿易의 七割을 喪失케되는 것이다 日本織造工場은 最近軍用品으로 重大한 使命을가지게된 毛織物의 製造를 爲하야 이미工場의 一部를 改造하고잇스니 濠洲貿易의 打擊과 英本國의 對南米綿織品輸出貿易에의 影響은大英帝國에 重大한痛苦라고 아니할수업스니 이리하야 印度와阿弗利加에始作된兩國의 經濟戰은 南米를舞臺로興味잇게展開될形勢다

反帝大會 九月三、四、五日開催

英、白代表上海着

【電通上海十八日發】 世界反帝國主義大會代表말레―卿(英) 와 말로우(白) 等一行六名은 十八日午前十時佛國汽船으로上海에到着하야 帝國主義打倒의데모中에宋慶齡邸에入하얏다 大會는九月三、四、五의三日間에行한다

宇垣總督 忠南各地視察

宇垣總督은 十九日朝京城驛發列車로 天野秘書官 戶之內屬帶同하야 禮山에開催中의敎員農村振興講習會에 臨席하고나서 忠南各地의農村振興狀況을視察하고二十日夕歸城할豫定이다

殖銀上期純益金 百五十一萬餘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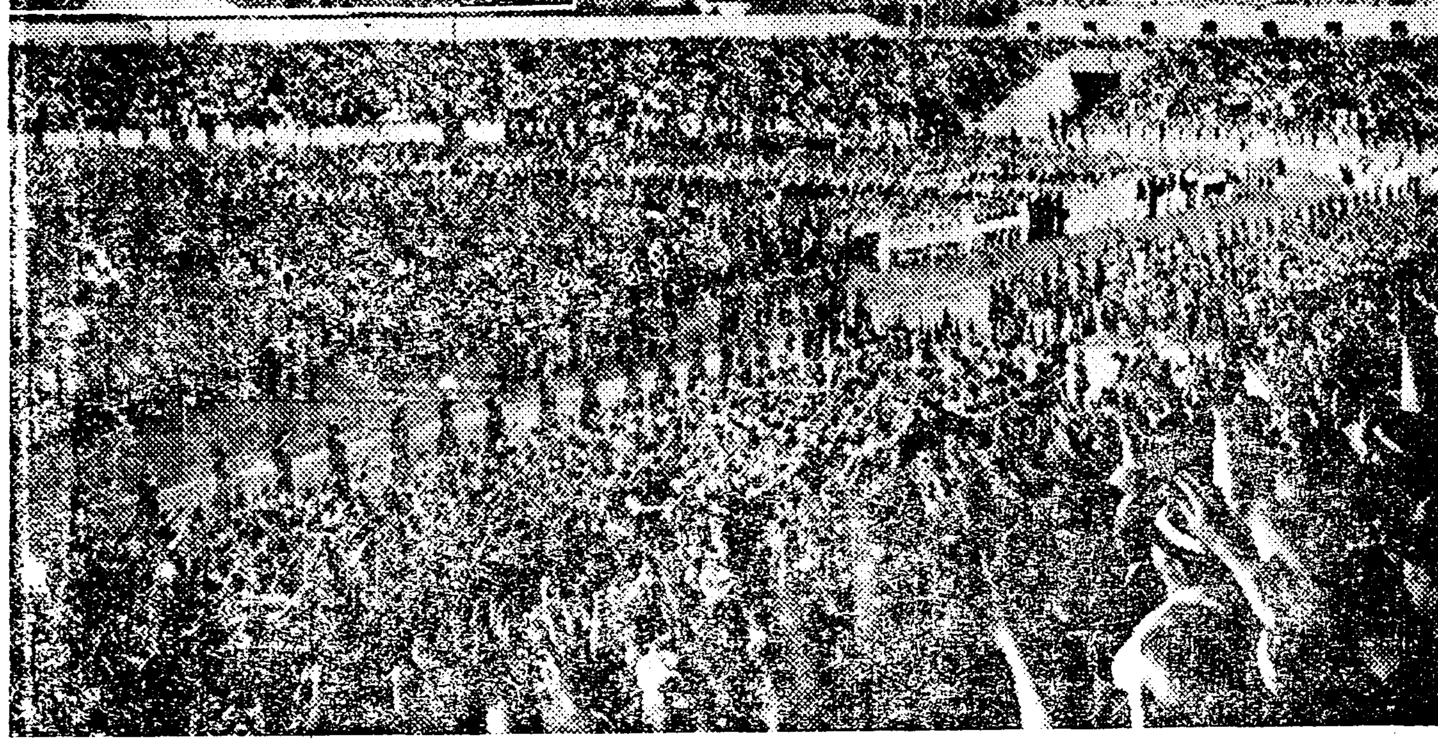
(下) 有價證券의 營業狀況報告

商業貸出 當期의本金額은未償先低로 一時米資金의回收가幾分遲延氣味이엇고 貿易起流과如히輸移入貿易額이增加를示하얏슴으로 前年同期에比하면 多額의殘高를存하얏스나 逐月回收高가貸出高를超過하야 相例의收縮을示하얏다 即當期中本貸出의收授高는五億四千三百七十四萬餘圓 回收高五億六千一百九十七萬餘圓 期末殘高五千九百四十六萬餘圓으로이것을前期末에比하면 千八百二十三萬餘圓의收縮을示하얏다 『콜』론은除外하고 前年同期末에比하면二百八十萬餘圓의增加에當하얏다

貸出資源 貸出資源方面을述하면 當期中債券發行하기六個其總額二千二百五十四萬餘圓으로 其中二百五十四萬餘圓은大藏省預金部引受 殘額二千萬餘圓은 一般公募에依한것이다 그리고當期中期限의到來에依하야 또는 期限前에低利借換償還을了한것이 累計三千二百四十九萬餘圓에達하야 期末殘高二億五千一百三萬餘圓으로 前期末에比하면 九百九十五萬餘圓의減額을示한다 그다음으로預金期末殘高는 五千四百十四萬餘圓으로 前期末에比하면二百五十萬餘圓의減退로 定期預金及當座預金의減少에歸由한것이다

金組中央金庫業務 當期中貸出取扱高五百九十一萬餘圓回收高一千三萬餘圓期末殘高二千一百十九萬餘圓으로比前期末 四百十二萬餘圓의減少이다 一人當平均貸出高는還減되엇고 當期末預金殘高는一千七百八十四萬餘圓으로比前期末三百九十三萬餘圓增加이다 當行은當期中一百五十一萬餘圓의純益을 得하얏다 (完)

夕刊後의市況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一〇八〇 一〇七〇 一〇六
新東 一八三〇 一八一〇 一三〇
日產 一八九〇 一八九〇 一三〇
東新 一 一 低
東京短期 大引 一九〇四 高値 一九〇 低値 一九〇
橫濱生糸 先 八六六〇〇 八四七〇〇



◇나치스黨의 文字形體操大會◇

寫眞은 獨逸『나치스』黨에서主力하는 民衆體操의一種인文字形體操全國大會光景과 當日大會總指揮次로 臨席하엿든『힛틀러』首相

墺國도『나치스』化?

民心에親獨傾向이濃厚

聯盟提訴하는것도問題

現政府는죽을地境

【電通維也納十七日發】 墺地利政府當局은 獨逸『나치스』가繼續하야猛烈한反墺宣傳을行하고잇고 더욱이『나치스』의宣傳部長『하비히트』氏로하여금墺國國民에對하야 革命을일으켜政府를顚覆하라고『라지오』演說을하게한事實에對하야 極度로憤激하야 聯盟理事會에提訴코저考慮中이나 容易히提訴를斷行할수업는特殊事情이 存立하고『돌푸스』首相은 四苦八苦中에잇다 그것은『돌푸스』政府가 國內的으로實勢力이업서 겨우執政官的獨裁手段을 弄하야體面을維持하고잇슴에不過하고 萬若今回總選擧에서 信望을失하면墺地利에도 『나치스』의勢力이擡頭하야 選擧에서『나치스』가勝利할 形勢에잇슴으로國際聯盟에提訴하야도 當當히獨逸과겨룰수도업고 또墺國人中에는 心理的으로나經濟的으로나獨逸과結合하려는傾向이顯著하야 目下獨墺關係는精確히말하면 나치스와돌프스政府對立이라는 小微妙한經緯를 有하고잇다

◇猛虎憑河! 나치스의暴擧◇
힛틀러―日『諸君! 光明의 언덕(丘)은 눈앞에보인다(찬소리抗議)에 귀를주지말고一路邁進하자』 그러나다리(橋)가 이모양이니 歐洲의平和는 一髮危機―
―【金 華】―

蘇聯邦의潛勢力은 모든國家보담優越

蘇聯에서歸來한米人專門家

그承認할必要를强調

『션스톤』市에서發行하는米國基督敎團體機關紙上에『야로스라우스키』工廠에서 二個年半勤務한 米人專門家『와ー드』氏는 大要左와如한 露西亞事情을 揭載하엿다 余가 二個年半이나滯露하는동안 黑海로부터『발틱』海의間에 在한 大都市工業中心地를 觀察하고 各階級의露西亞人과 接觸하여現代『쏘베ー트』의精神에서 … 此等民族을爲하야敎育機關과病院等이 施設되여잇고生活條件이向上되여잇다 材料不足은事實이나 新規發明이 續續發表採用되여 諸缺陷이補充되고잇다 『메이데이』其他祭日에는 各都市에서 閱兵分列式에 參加하는精銳赤軍를 볼수잇고 國防充實은 一目瞭然하게了解할수잇다 同國債破棄한것은 何等米國의『쏘베ー트』承認에支障을及하리라고는 生覺지안는다 舊露西亞와는 何等關係가업는『쏘베ー트』聯邦이요『쏘베ー트』는承認後에는 債務를履行치안은例는업다 一切의困難을突破하고 支拂한債務는支拂하고잇다 米國의 到處에無蓄藏으로잇다 天與의富源은 經濟界의繁榮을보게될것이다 나는『쏘베ー트』承認은 世界平和에 多大한役割을하는共時에 兩國의交易은將後로 經濟界의繁榮을 하게될것은幸福으로녀이는바이다

【本社世界一週紀行】

폼베이舊跡과 羅馬의廢墟 (三)

李順鐸

死都『폼페이』

『나포리』에서 東南으로約八十哩許에『폼페이』라는 古代希臘의都市가잇다 이都市는紀元六十三年에 大地震이잇슨後同七十九年에 그附近의『베스비오』火山이 大噴火함으로말미암아 全部地中에 埋沒되엇섯다 그래서 이附近一帶는그後都原이라는일홈으로傳해왓다 伊太利南部가 佛蘭西王家에所屬되여잇슬때 同千七百四十八年에一都原의 耕夫가偶然히發掘되어大理石像으로 因하야『폼페이』市가 發掘되엿다 西『부루본』王家時代에도 相當히發掘되엿스나 一定한秩序下에서學問的으로 發掘하기始作하기는伊太利統一後이다 그리하야 只今은全市의 約三分二가發掘되엿는데 남어지發掘을完全히맛치기爲하야는 아즉도百餘年을要하게되리라고한다 나의訪問하든때에도 이發掘事業은進行中에잇섯다

發掘事業

나는 『폼페이』『베스비오』驛近乘車券을사가지고 觀覽道路의 停車場에서 車를타고向令黑煙을不斷히吐하는『베스비오』火山을 山下를通過하야 約四十五分만에『폼페이』의東便『노라』門停車場에下車하야 城壁向하야드러갓다 이市는東西로길고 南北으로좁은 楕圓形의市로서市의 周圍는 城郭으로圍繞되고 城廓에는東西南北에 各二個式의門이잇는데 이는 楕圓形안에『井』字의大街가잇슴으로도 自然히그렇케된것이다 이都市의住家는거의全部二層建이오 材料는全部石材及煉瓦造이다 그리고 道路는全部平板石으로정맛치서 알고人道와車馬道의區別이잇다 建物의構造와樣式은 極히進步하야비록現世人이라도 놀내지아니할수업스며 都市計劃에잇서서도 목격한『井』字와『十』字로되여서 通行 火水 消防等에便하게되고 住宅 酒店 浴湯 旅館 洗濯所 商店 錢莊等의專業家屋이 그大理石看板으로歷歷하며 各家屋內의壁畫와『모자이크』의 美術發達의極致를 보는듯하다 그리고住家內에는 廚房 食堂 浴室 書齋 寢室 庭園 內房 應接室等의 區分이 壁畫의所示로確然하고 水道의設備또한完全하나 遺物外의發掘物陳列場을가본즉 當時에使用하든 奇妙를極한靑銅 大理石 陶磁器製의家具什器其他裝飾品等은 吾人의好奇心을이르킬만하며 生埋된人畜의發掘物은보기에도『소름』이끼친다 特別히 吾人의興味를끄으는것은 大建物의裁判所와

共同便所와

共同墓地 露天劇場等의設備의 完全하다는것이다 二千年前의都市가 이러케 完備하얏든가하고 생각할때 今日人類의發達은 차라리遲遲하다는것을 嘆息아니할수가업다 仔細히보려면 限이업지마는 그럴必要를 늣기지안키때문에 나는 暫間暫間도리보고다시『나포리』로向하야 밤을急히 羅馬로 돌니왓다

古都羅馬에

伊太利서울羅馬市는 紀元前八世紀頃부터잇섯다고한다 따라서 歐洲에서는 歷史的으로 最古하야 所謂羅馬文明 乃至歐洲現代文化의發祥地가되엿다 그러나이最古都市도 現伊太利首府로되기는 그다지 오래지안타 即羅馬는『사루듸니아』(Sardinia)王國이 千八百七十一年에 伊太利半島를統一함으로부터首府가되엿다 우리의잘아는바와가티 伊太利에는 各地方에小國이割據하야 天下는 지랄와갓고 各王國은榮華에만耽하엿기때문에 結局北歐의所謂蠻族이侵入하야 이를隔斷한結果

四分五裂 하야 統一前

約千餘年間은伊太利도 羅馬法王廳에管理되엿섯다 이러다가 結局十九世紀中葉以後에『마찌니』(Mazzini)『가불』(Cavour)『가리발듸』(Garibaldi)等의蹶起는 功을奏하야 伊太利는(에마누엘)二世下에비로소 統一이完成되여 今日에이르럿다

誇張한三大作用
⊙殺菌作用으로
皮膚病의病虫을殺滅하고病毒, 痒痛, 不快感을除去하야
⊙消毒作用으로
患部의病毒을分解消滅하고內攻치지안코毒을消滅케함
⊙收斂作用으로
患部를收縮하고健康組織에復活하야治癒를迅速케함
前記의三大特長은데―무水만이가진最大의자랑이와다

피부病退治
데―무水

●땀띠온몸 ●음부습진 ●무좀 ●옴 ●태독 ●부스럼 ●진무른데 ●가려운데 ●브름 ●헌어루러기 ●버짐 ●癜風 ●鱗癬 ●濕疹 ●안창 ●여드름 ●죽은깨 ●옷오른데 ●벼룩 ●진무른데 ●옷오른데 ●腫物 ●痔疾 ●肛門 모기·빈대等毒虫에게물닌데에는 ▲몃치지도안코 ▲압흐지도안코 ▲內攻도업고 ▲눈에도안에우고 ▲들업지도안코 ▲냄새도업고 ▲압흠과가려움도업서지고 ▲진물도것처저서빨니납니다

데―무水 藥價 (一)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 一圓 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의藥房에서販賣합니다 萬一品切될때에는 代金을添付하야左記發賣元에注文하시면 卽時送藥하겟습니다

模造品이만흠으로必히 데―무水를 指名하시고 사시옵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南一二四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

染料原料
信用本位
卸商 大壯洋行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市場入口側)
電話本局三四一七番 振替京城一二〇六八番

産金家의福音
金銀地金分析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優美館
八月十七日(木曜)부터 納涼公開
獨逸『우파』社超特作 冒險王 全七卷
監督 아―놀트 판크 主演 에른스트 우테트 氏決死的猛演 鳥人루지 레니리펜슈탈
R·K·O 會社大提供 速力時代 全七卷
監督 스티―븐 로바츠 主演 렛드 그란지 氏
F·B·O 社超特作大映畫 名馬天來 全七卷
助演 에드나 마후이 孃 白銀王

朝鮮劇場
八月十八日낫부터 二日間 特別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파라마운트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내가죽인사나이 十卷
主演 라이오넬·바리모아 난시·카롤 퓌닙스·혼무스
파라마운트社特作 全發聲 漫畫와뉴―스
日活스타―·쌋스 二十日二十一日(二日間)
F·W·무르나우 監督 따부? 全卷

◇……淸香 (지금이한창인련꽃)

武器被奪한反滿軍
日軍과激戰二時間
追擊砲彈手榴彈等累十箱押收
反軍百五十名死亡

【奉天十八日發】 안동현으로부터 출동한 궁본(宮本)○대는십칠일아츰안동현서쪽십리가량되는 산림속에서갈자리(蘆席)로싸서감추어둔박격포탄(迫擊砲彈) 삼백, 소총탄 (小銃彈) 칠천이백발, 긔관총탄 (機關銃彈) 여덜상자, 수류탄 (手榴彈) 오십개와이외에도박격포탄(迫擊砲彈)이십오상자를발견하고즉시 압수하얏는데 이것은 모다 남경금릉공창제(南京金陵工廠製)로지난날 이십륙일밤 대고산(大孤山) 부근 대양하(大洋河) 하구(河口)에 다어든 배에서풀어나린 중국본부(中國本部)에서 보낸탄약으로판명되얏다 그리고 긔긔무기를압수당한 리춘윤(李春潤)과리자영(李子榮)의 합동으로 예를자은 기관총두대까지가진약삼백명의반만군(反滿軍)은 무긔를 탈환코저즉시 습격하야왓는바 궁본○대는 광천○대(光川○隊)와 협력하야 대전한지 두시간동안에 격퇴식히고계속하야진지(陣地)에남어잇는 그들을 격퇴식히라고 고석○대(高石○隊)와 협력하야 공격한결과 반만군측은일백오십명의 사체를버리고 무성한산림속과 수수밧속으로 도망하여 버리엇다는바 일본군대측의손해는 궁본○대의 보병오장(步兵伍長)중환용 (中丸勇) 고석○대의 상등병 송본청(松本淸) 이등병 상전화남(相田和男) 평간무웅 (平間武雄) 등사명이 전사되고 고석○대의 특무조장(特務曹長)소빈의평 (小濱義平) 상등병 비전(飛田)등소 (藤治) 일등병 대내(大內) 이등병산야(山野)등 오명이 부상하얏다 한다

鵰飛部下와激戰
五十餘名을射殺

片倉製絲罷業
尙今對峙中
製絲工場當局은唐慌

【咸興】 함흥부서정(咸興府西町)에잇는 편창제사주식회사함흥제사소(片倉製絲紡績株式會社咸興製絲所) 녀공륙백오십명중 삼백오십명이 십칠일 오후오시 십분경부터 회사에대하야 대우개선을요구하야 회사

通關證을惡用·
巨額의不當利得
關東軍酒保支配人이

【奉天十七日發】 봉천성내헌병분대(奉天城內憲兵分隊)에서는지난십오일봉천관동군주보(關東軍酒保) 지배인재등행칠(齋藤幸七)(四○)와 입게원(仕入係)야택국차랑(野澤菊次郎)(四一)과창고계(倉庫係)서견아(西見)등을 체포하야 극비밀리에 취조한결과 이자들은 무세통관증(無稅通關證)을악용(惡用)하야 잡부금을 속여가면서금년칠월이래총액사만원에달할술 맥주, 담배, 과자의류건을시벼영정양행(永井洋行)과과자수삼상인에게 매도하야 주문을취하든것이 관명되엿다 그들은청상인 부과(賦課)하기에 거액의 수입세를 포탈하야 교묘히 탈세한후에 부당리익을취한것으로 이관계자는모다인치되여 엄중취조중이라 한다

處女를노리는
무서운『사탄』
취직식혀준다고속여서
酌婦로팔려다發覺

【鐵原】 요즘면는가정생활에 한푼이라도 보태려고 취직을애쓰고잇는 순진한 시골처녀를취직식혀준다고 도시로 꾀여내여 취직은 커녕 팔어 먹으려 다가 경찰의 신세를 지게된 악도가 잇다 강원도 김화군 김성면 방충리(金化郡金城面芳忠里)에사는 리풍림(李豊林)(二三)은 김화군근북면 유곡리 (近北面楡谷里)에사는 장덕순(張德順)의동재딸 옥화(玉花)(一七)란 처녀를 꾀여 내이려고 그부모를 향하야 자기는 지금서울에잇는 경성방적주식회사(京城紡績株式會社) 공장에 감독으로잇는바 자기가 근무하고잇는 공장에 직공으로 취직식혀줄터이니 그대의 딸을 자기에게 맷겨달라고 감언리설로꾀여내인후 지난열하로날 철원읍에잇는 모려관으로 다리고 와서 류숙하며 엇던술집에팔어 먹고자 하얏든바 그술집에서는 호적등본과 부모승락서와 인감증명을 수속하려고 그처녀의 집으로 차저갓다가 그계획이발각되여 범인리풍림은 즉시철원경찰서에 체포되고 방금엄중한 취조를밧고잇다 한다

四百運炭罷業團
監督家包圍吶喊
解決策세우다雙方强硬으로決裂
平壤署警官總出解散

를나와 운흥리파출소압까지 시위행렬중 파출소순사에게 케지되야 회사에도라가서 회사에대한불평을 부르지즈며 대치중이라톤은 에메보도한바어니와 그후회사측에서 여러가지로 회유하고그동의 불평에대한 성의를 보여야 독사한공사 뮈휼회사안 숙소로 들어가서 일시잔정단상태에잇스나 금후엇더케 해결될는지는 아직알수업는바 이에대하야 동척사소장당택박진(所長唐澤博進)씨는 말박한과자에게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노라오자 이면일이생긴것습니다 요사이 공사가 잇서 삭사가는게되는 멘이앗는데 그때문에 불평이생긴듯합니다 평소에불평이나 무슨 대우게선에 대한요구가 업섯는가구요? 네글세올시다별로 업는듯한데 참당이우도당황하여 무어라말할수업슴니다 벌가족에나달지안으니무슨불평이든지잘들어가지고 곳 무사하하겟습니다 외부와와 무슨연락은 업는듯합니다 하고변도는 근거나 불평이업고 일시적감정으로 이러난것가터 말하나 당황한 긔색이 얼굴에서러여 잇섯다

【平壤支局電話】 동척광업회사석탄적치장삼동(東拓鑛業所石炭積貯場)과평남운수로동조합(平南運輸勞働組合) 장과의사이에 알력으로발단된 오원사건은 본보에도루차 보도하여거니와 본시석탄은 일본에납입기간이 인는관계상 동척광업회사취야(吹野)운반계장과 방종(房宗)대동운수회사지배인과 고교(高橋)산업회사 지점장등이 십팔일오후세시반에 동척루상에서 긴급회의를열고 방금그해결책을강구중이나바라업단원사백여명은산피리운수로동조합본부에집합하야 결의한결과 목촌(木村)감독파송(宋)십장을내보내지안는동면작업을할수업다고강경한태도를 취하고 회사측에서는 회사체면관계상절대로 내보낼수가업다고 쌍방이 강경한태도를 취하고잇서 그해결책은결렬되고마럿다한다 파업단은 오후두시에 목촌의집을 에워싸고 떠려죽이겟다고 아우성하야 평양서에서는 서원이출동하야 헤쳐보냇스나 다시 봉상사나읽지안을가하야방금엄중경계중이라 한다

서울구경왓다
自動車에轢傷
파주사람이중상

경긔도파주(坡州)사는 성락수(成樂秀)(四二)는 서울구경하려올나왓다가 십팔일오후 아홉시십분에 종로부근 의전병원정류장(醫專病院前停留場)에서전차길을 가로건느다가 그째마츰뒤에서 오는 대동자동차부(大東自動車部)타시에부다치어 왼편억개와 왼편다리에 이십여일치료할만한 중상을입엇다 그는전차에서 나려서 전차압흐로나가서 전차길을 건너려하든차에그가 전차에서 나린것을보지못하고 질주하든그자동차에 별안간에 바친것인데 과실는자동차운전수에게잇다고 할수 업는여면이엇다

廿五年間의秘密
實子確認을提訴
어머니의젊은시절에『로멘쓰』
◇秘密의說破로親父를차저

【大邱】 이십오년만에야친아버지가잇다는비밀을어머니입에서듯고 나는당신의 아들이라는 실자확인(實子確認)을해달라는 진소송한것이잇다 부내 북내정(北內町)조범룡(趙範龍)(二五)은 덕산정(德山町)리인수(李寅洙)를상대로하야 십칠일 대구지방법원민사부에 실자확인 소송을 제긔하엿는데 긘과조범룡의 어머니 김숙이(金淑伊)는 조동신(趙東信)의처이엇는데 조동신은 명치삼십구년이래 병으로 병석을떠나지못하다가 마츰내 대정십년에 죽고말엇다 그런까닭에 조범룡는자긔아버지는죽은 조동신으로만알고 잇섯더니 사실은 조동신이병석에 잇슬사이에 그어머니김숙이가 피고리인수와 정을통하야 난것이자긔인것이최근에판명된까닭에사실아버지를찻기위하야 이소송을 제긔하게된것이라고한다

乘客十四名滿載한
自動車高嶺서轉落
德川고사리고개서貨車와衝突
二名은生命이危篤

【平壤支局電話】 십칠일오후일곱시에 덕천군풍덕면신흥리(德川郡豊德面新興里) 「고사리고개」에서 령원군(寧遠郡) 백룡호(白龍號)의 승합자동차가 평안(平安) 운송점 화물자동차와추돌하야 이십여척이나되는 벼랑에떠러저 승객열네명중 두명은중상하야 생명이위독하고 남어지열두명도모다 부상하엿다

粟飯먹고作農하야
白米는日本移入
朝鮮米移入稅問題 (二)

작일에계속하야 조선쌀이 오늘의학대를밧게된경과를근본적으로알어보기로 하자 어케도잠간 말한바이지만은 일본안에서 일년동안 먹는쌀의수량을 다시한번알어보면 작년일년 동안은인구륙천오백 사십일만명이 륙천륙백삼십 사만석을먹엇다 그중에는일본에서 나는쌀 오천오백이십일만석과 조선에서 건너가는쌀칠백십구만석 기타대만에서나는쌀이 석긔어잇다 이것을 다시최근 오개년간의 평균수량으로보면 일본에서 나는쌀오천구백만석 조선에서건너가는 쌀륙백이십 여만석 대만에서건너가는쌀 이백사십만석 그외외국에서건너가는것 백칠십 여만석 이엇다다시한석표준으로계산한다 합계륙천 구백칠십여만섬을 먹엇다 일본쌀팔두오승(八斗五升)에 조선쌀 팔승구홉(八升九合) 대만쌀삼승 사홉(三升四合) 외국쌀이승오홉(二升五合)을합해서 일년에 한섬먹는계산이된다 엇잿던일본으로서는 일본서 나는 쌀만가지고는먹을수업서조선쌀을그만큼가저가야일본사람들이 먹고살수잇다는것이다이갓치하야일본에서일년동안매히우는쌀은 아츰저녁밥쌀도되고 떡쌀도되고 또술도비저먹고 여러가지로 씨우지만은통털어서 계산을 하여보면 한사람압에 작년일년 동안은 한섬과 한홉남짓(一·四石)하니 먹엇다

◇

그러면 조선사람들은 쌀농사를 얼마나 지어서얼마나먹고 남어서 일본으로넘겨팔면서 만성을 듯고 잇는가도알어볼 필요가잇다 조선의쌀농사는 누구나다아는바와가티 농사의 대종이되여 잇는데 이십여년전일한합병(日韓合倂)당시 명치사십삼년에는 겨우 일천만석추수밧게 업섯다 몃해후 대정원년의 좀더정밀한 조사를보면 일천일백 오십륙만여석의 추수가잇섯는데 일본에 팔기를 삼십만석가량팔고 일천사백팔십이만여명의인구가일년에한사람압일곱말네홉 (七斗四升四合)식일일만쌀엇다그런즉 여석을먹엇는것이다그러든것이 그후농사가전반적으로발달되고 인구도 점차늘어가는 관계도 잇것지만은 일본에식량으로 쌀을보내기위하야 쌀농사는 더발달되엿다 총독부에서도 일본에보낼쌀—즉식량을대이기위하야 조선농민에게 쌀농사를 힘써만히짓키를 장려하여왓다 그사실은년년히 총독부당국의 조사가 증명하고잇다

◇

즉작년에는 일천륙백 삼십삼만석의추수가잇서서이십여년간에반이상의 추수가늘엇다 그러고그동안일본으로건너간쌀의수량을 보면 대정원년에는 불과삼십여만석이든것이 작년에는 칠백만석으로 이십여배나늘엇다 이가티하야 조선사람은쌀농사도 더만히지어 더만흔쌀을일본으로팔엇다면먹고남어서팔엇느냐하면 그러치안타—작년의조사를보면 조선에서이천륙십만명의인구가 한사람압흐로 너말두되팔홉(四斗二升八合)식먹어서 합계팔백팔십삼만여석 밧게못먹엇다 이계산으로 보면이십년전에 일년동안일곱말이상을 먹든식량(食糧)이줄어서 너말남짓하게밧게 못먹엇다하면 그런것이 안이고 조선사람은 가난한 배문에입쌀밥을 먹을수 업는리유가잇다그러고 그반면에 농사지은쌀은일본으로 일본사람의 식량을대이기 위하야 년년히 칠백만석가량을 일본으로 건너보내게 된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보아 조선사람의 쌀농사는 조선사람이먹기위한것보다 일본잇는 일본사람을 먹이기 위하야 지은농사이라는것을 잘알수잇다 그러타면조선사람은 쌀농사를 지어쌀장사를 하엿스니 얼마나 리익이잇는장사를 해왓는가를 알어보자 (계속)

石油倉庫로
滿洲國과英人紛糾
이전하라거니안커니하야서

【安東縣】 안동현구시가에영국인이 경영하는 이룡양행(怡隆洋行)은석유창고를후취보가(後聚寶街)에두엇든바동가부근에는인가가 조밀하여 위험함으로민국 십륙년도에 현재의연강가(沿江街)로이전하엿든데그곳도역시인가가조밀함으로당시중국동변도윤(道尹)이이룡양행에대하야다른곳에이전을교섭하엿스나 어자흥좌우로하고금일까지 실행치안코엇든것이데그후만주국이성립된후시경찰(市警察)에서는인가조밀지대에의하야 석유창고를 동은주빈에게 큰불안을 엿진다하야 산사차이전을 교섭하얏스나 이룡양행주인인 영국인은 완고하고 불응하여서경찰은 최후수단으로 봉천영사관에처 영국령사관에 『만약이전하지안는시에는 재류면허를 승인치안는동시에 무조약 건국민으로 만주국의법령에의하여 처리한다고 한외물 계출한결과영국총령사관(英國總領事館)으로부터 이룡양행에대하야 창고이전을 하라고 통달하여온모양이라는데 이룡양행은 방금이전장소를물색하고잇는중이라한다

晋州赤勞事件
被告六名이控訴
三名은벌서大邱로移監

【大邱】 작년십일월에 사벳트러시아 혁명긔렴일에 쎄라를 산포하엿다는 진주(晋州)적색로동조합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최고삼년이하 일년륙개월이상징역의 판결을바든송기호(宋璣鎬)등륙명은 일심에불복하고 대구복심법원에공소하엿든바십륙일송긔호 장호관(張虎觀) 박원지(朴源志)삼명은 진주서(晋州署)고등계주임과 진(秦)형사에게 호송되여 진주형무소에서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엿고 조삼수(趙三壽)김환기(金桓基)김호배(金琥培)도 이삼일내에 대구형무소로 이감되리라한다

操車區小火
십팔일오후

십팔일 오후여섯시이십분경에 경성역 조차구(京城驛操車區)집무실에서불이나서 집무실 약네평가량태우고 동사십분에 진화하얏는데 원인은 철판으로한 굴뚝에서 불똥이쒸여나와 부튼것이라한다

洪水亂의混雜中
拳、獵銃二挺紛失
星州郡靑坡面의鑛業者가일허
이제야알고서는騷動

평북강계(江界)경찰서에서권총(拳銃)을 분실한괴사건이 아직도 판명되지못한 요지음남쪽지방성주(星州)에서도 권총과 렵총(獵銃)을 분실한 사건이또다시발생되야 남으로북으로 권총사건에 경찰당국자는 방황하고잇다 성주군청파면신정리(星州郡靑坡面新亭里)광업(鑛業) 일본인 소로명일(小路鳴一)은 지난번 남조선대홍수때에 피란을가노라고 호잡한틈에 그가소지하엿든 미국제 원절(元折)십이번무게두(無鷄頭)이런발 렵총한자루와 독일제『모젤』륙혈발권총한자루와 및탄환 오발을 분실당하얏다고 요지음에야 그곳경찰서에 계출하얏슴으로 경찰측에서 크게놀래여 방금범인을못잡으려고 각지경찰서에 수배하는동시 맹렬한활동을 개시하엿다고한다

여름다지난이제야
漢江遊船代減下
룡산서에서업자에게명령

룡산서(龍山署)에서는임의 한강전부가 관내에편입되고로 벌서부터 현안(懸案)이든 한강측유선조합과 로량진측(鷺梁津) 유선조합간 협정문제(協定問題)를 해결하고 조합의협정을 식히려고십칠일 오후룡산서루상에서 동조합원십일명을모아 노로동(東)보안주임과 최후적협의를 한결과 로량진측이『보—트』는십전으로 내리고『모—타—보—트』는마력에의하야 료금(料金)을 내리기로하고 옥형선(屋形船)은 시간제도로 계정하기로결정하고독모다 『보—트』의 속력은 낫에는 팔마일 밤에는오마일로하고 완전한 동화의설비를 하게하고 일반뽀트에도등불준비할것과 그타를 결정하엿다한다

朴今淳孃
洪原에押來

【洪原】 얼마전에 본지에보도된 북청(北靑)경찰서에 검속되여취조를밧고잇든박금순(朴今淳)(二三)양은 지난십륙일 오전세시차로 고향인홍원경찰서(洪原警察署)에 압송하여왓다는데 자세한내용은 아직알수업스나 듯는바에의하면 무슨불온한 사상관계인듯하다고하며 련루자가 업슬뿐아니라 보아 큰사건은 아닌모양이라고한다

七月中失踪郵便物

칠월중 경성우편국에 주인을 찻지못한 우편물은 일본인에게가는것이 삼백십일통 조선인의게가는것이 일천팔십오통인데 그중에서 조사하야 송달된것은 일본인 이삼십칠통 조선인사백삼십팔통으로 그타는보관되고잇다는데 무가물(無價物)은삼개월 유가물(有價物)은일개년간으로 상긔한내에 신고가 업슬때는유가물은국고로 무가물은 태와버린다고한다

成鏡線에鐵道自殺

십칠일오후네시이십오분함경선 함흥 함남흥상간(咸興咸南興上間)에서 함주군삼평면 신흥리(咸州郡三平面新興里) 김장종

空家에서發火
시내황금정에서

십팔일 오전두시 이십오분경에 시내황금정(黃金町)삼정목팔번지의구호 뷔인집창문에서 불이일어나 맹렬이타는것을 그마즌편록옥려관(綠屋旅館)에서발견하고 곳진화에착수하야 약오분만에 소화되엿는데 손해액은오십원가량이며 원인은 방금소관 본정경찰서(本町署)에서취조중이나 지금까지의 조사로는절인의담배불에서 발화한듯 하다고한다

五、一五被告減刑을
九人이斷指嘆願
륙군대신에게보내여
소름끼치는膳物

【電通東京十八日發】 십팔일오후네시에 륙군대신 관저에엄중히밀봉한 서류소포가 배달된것을부관(副官)이열어본즉다섯치가량되는 나무상자에 다가먹으로『드린다(呈)』고썻슴으로 다시열어본즉 속에는 사람의새끼손까락 아홉개가들어 잇서소동하얏는데 신석시백산포(新潟市白山浦)의 하야도시에(河野トシヱ)외여덜명의새끼손구락으로 오일오사건(五、一五事件) 피고들을감형(減刑)식혀달라고한것이엇다

求刑또延期

【聯合東京十八日發】 오、일오(五、一五)사건륙군측에 대한 론고와구형은 십구일 오전한시에 개정하기로 결정하얏는바 삼성회의(三省會議)후 돌연 연기를 보게되엿슴으로 이는다음개정일 륙군측과 민간측에대하야 구형(求刑)의론쎄로매더불하야 일본전국의주목을쓸고잇다한다

國民府再活動
군사부를개편하엿다고

【新義州】 한동안침묵을지키든 국민부(國民府)는 다시군사부를개편하여 군사위원장(軍事委員長)에김활석(金活石)을 임명하고 아연활동을 개시하엿다는데 지난팔월초순경에 김활석은 그부하백여명을인솔하고 환인현대협피구(桓仁縣大夾皮溝)에 나와 부하이십오명식을 수처에 분둔(分屯)케하고 목하 무엇인지를획책하고잇다한다

◇梁炳寅이失家

팔월십칠일오전여섯시에 시내 종로사거리부근에서 울고잇는 아이를 동대문서원이 발견하여 방금동서에 보호중이데 대구(大邱)에 아이로 량병인(梁炳寅)(三)이라는바 집을 일흔것이라고

本報支局長
警察에被檢
내용은비밀이라고

【麗水】 전남 려수서(全南麗水署)에서지난십륙일 새벽에본보려수지국장을 검거하고 가택수사까지 모조리한후 괴자와청년십수명을 검거하고 방금엄중취조중이데 내용은아직알수업다

定、退兩地에
電燈架設實現

【興南】 홍남전기회사에서는 정평군과 퇴조역에도 전등을가설할예정으로 수일전에 재동건 동게주임이 정평군지철회고영하는데 배전소(配電所)를 중왕역부근에두고 정평평산을 위시하야정평일대에 전등을 가설하게로내정되야 불원간 공사에착수하리라하며 이공사가 끗나면하조에가등공사를착수할터이라 한다

城津水産製品
前年보다半減

【城津】 성진수산제품 검사소에서 칠월중에검사한 그개황은다음과갓다고한다 칠월중 검사개수는 사만륙천오백 구십구개인데 전년동기의 구만팔십륙개에비하야 약절반이나 감소된것은 금년부터는 진도(進藤)수산제품검사소가 독립한 그반면의 제품을 가산하지안은데한원인이 잇다고하지만 대체로는 전년동긔에비하야 고기가 잡히지안은것이 주요원인이라고 할수밧게업다한다 그리고 또금년일월이후 칠월말까지 루계에 대하야 전년과 비교하여보면 금년 십삼만 사천칠백팔십개 전년 십칠만 구천칠백 삼십사개인데 전년의 총계에서 재검사품급차호 군선의경사개수를감하면 칠내 제품개황을알게되는바 금년은 저우사촌이백구십오개의 검사증수를 보게되엿다한다 이제 당업자들의 설에의하면 약삼십해리를 나가면 정어리가상당히잇지마는 상어(鮫)때문에 조업 불가능이라하며 혹엇던지방에서는 더생각할여지도업시 발서 꽁치(鯖)로 방향을 전환한자도 잇는모양인데 지금형편가트면 당분간제품이증철될모양이라한다

八月十九日(土曜)
(波長四九二米)
◇午前十一時五分 氣象出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營業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0時五分 바이올린獨奏
一、조나치네
作品百番……드보르작크作曲
二、알렉그로・려죠두―토
三、스케르쏘・몰토비바―체
四、피나―도레・알렉그로
피아노伴奏 OO스투데니
二、舞曲
잠자는美人……차이콥스키作曲
T、F奏

◇同0時四0分 뉴―스
◇同二時 趣味講座 世界의山水美 (三) T、B수두데니
◇同四時 뉴―스職業紹介事項 申敬淳
◇同六時 兒童齊唱과獨唱
一、齊唱
가、보름달 金永淳作曲
나、나팔꽃 洪蘭坡作曲
二、獨唱 파란새를차저서 尹克榮作曲
三、齊唱 제비男妹
四、獨唱 외로운밤아 金永淳作曲
五、齊唱 봄제비
六、獨唱 기러기 尹克榮作曲
蘭岡兒童聲樂學校 指揮 金永淳 피아노伴奏 北順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朝鮮童謠의變遷(三) 柳基順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0分 講話
創造의生活(三) 中央佛專教授 金斗憲
◇同八時 音律
一、平調會像
二、吹打
三、與民樂(도도리)
玄琴 金雨塘
揚琴 金相淳
大琴 金永根
長鼓 金一宇
◇同八時三0分 俗謠
一、愁心歌
二、긴난봉가
三、자진난봉가
四、병신난봉가
五、景福宮打鈴
◇同九時 漫曲 白牧丹 金一梁紅
一、盲人덕담
二、바위타령
三、新모리
◇同九時三0分 (A)時報 氣象通報 뉴―스 翌日프로그람發表

第一放送順序

八月十九日(土曜) 波長三一三三米 ▲午前六時(A)ラヂオ體操 ▲午後0時五分ヴアイオリン獨奏 ▲同二時 家庭講座家庭と健康(一) ▲同二時四五分 野球速報 ▲午後五時五0分野球速報 ▲同六時(0)ラヂオ夕涼み(第七日)―京都イングライより中繼― ▲同六時二五分(R)傳說と史蹟を探ねて(六) 野中兼山の話 ▲七時三0分(B)講演 黴菌と血液の戰爭 大阪帝大教授醫學博士 谷口腆二 ▲八時(0)義太夫 ▲同八時五0分(A)浪花節

◇明日順序◇

八月二十日(日曜) (波長四九二米)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0時五分 氣象通報 ▲同0時三0分 뉴―스 ▲同0時五0分 脚本朗讀 化學者 安鍾和 洪銀波 ▲同一時四0分(B)野球試合實況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決勝戰 甲子園球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A)管絃樂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活路 車載明 ▲同七時뉴―스天氣豫報 ▲同七時三0分 獨唱 安鞠承 피아노伴奏 金元福 ▲同八時俗謠 張彩瓊 李翠玉 ▲同八時三0分 唱劇 丁正烈 吳太石 朱幽香 韓成俊 ▲同九時三0分(A)時報 氣象通報 뉴―스翌日프로그람發表 ▲同九時四五分 滿洲로부터中繼

환절기위험한…… 부인병과 신경

먼저그원인을아라보자 (完)

産婦人科院長 許信

이와갓튼것은 누어서 그남편에조행을 의심하시는부인으로서엇는신경과민입니다 그럼으로부인이무슨병이잇스면 남편되시는분은 빨리그병을곳치기하야사라도 평소의소행을반하게할필요 가잇다고 하는것입니다

『오』 병인은부인으로서 가사에과한걱정=병원에입원만하여도 나어버리는 병환이잇스니 려하면임신하신부인이 입덧이 좀심하여 커서악커증(惡阻症)이되려고 할경우등은 이것입니다 이것은한례에지나지 못하지만 일반이

==부인== 를별히(主婦)가튼분이 부인병가튼것이잇슬째에는 더욱히 주의하서야할것이니집안살림은안볼수업고 당장죽을병은 안인것갓타서 조금식조금식움지기는것이 병증세를도음뿐만아니라 증세가조금이라도 더치면곳그것에대한 번민이생김으로 신경예민의원인을 만드는것임니다 그러면그부인이 입원을하여서도 역시그러한자극을 밧으실째가 업지안음것이오니 될수잇는대로 병원에게실때에는 가사에관한말삼을 물으도록하실것임니다

부인병과『히스테리―』―우에 말삼하온 신경과민증의 좀심한 정도로표현되여도 『히스테리―』라고하야 이것들을서로 혼동하는분이만으신것가틈니다 그럼으로 잠간여기서 그구별을말삼하여보려고합니다 참말 『히스테리―』는 선천성소질(先天性素質) 어큰영향을주는것으로양친혹은그혈족(血族)가운데 정신병자 혹은신경병자 보통사람과는조금다른변인 대음가(大飮家)가잇슬째에 그자녀에게무삼유인(誘因)이잇스면 곳 『히스테리―』를일으키는것이요 후천성유인(後天性誘因)으로는 과격한정신감동 과격한신섭의

==실망== 쇠약 음주 불피로 급격한흥포 번민 조리한교양 시대에적당한생활부교육적발달을못한신열불가지고알는질병 월경임신가튼것이요그중에도 심즁필구의유인이될것은 청춘발육이비교적완전하면서도 혼자오래동안지나시는분은처녀 또는한번가정부인이되엿다가 홀로되신분 혹은가정을가지고도 부득히 오래동안 별거하야 그로말미암아 성욕을억제하지안흐면 안될만한처지에잇는부인 수음(手淫)조선부인으로서는 임신하여야할부인에게 불임증이잇는것들입니다

이와가튼 원인혹은유인으로 발생하는 히스테리―는그리수효가 만은것이아니요 남자에게는 더욱이나 보기가드무른것으로 부인에게는잇는것입니다 그러하온즉히스테리―는 다 고하는글자가 녜적기리시아의 자궁(子宮)이라는 자외가튼자라고하여서 자궁과 『히스테리―』와는 밀접한관계가잇는듯키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나란소와자궁이 『히스테리―』와무삼관계가잇는것이아니요 그부분에 병환이잇스면 우에말삼한 후천성유인중에 하나를만드러서 따라서히스테리―를 일으키는것뿐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제일==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히스테리―』에 증상을쓰려고하엿사오나 잠간생각하니한편으로 폐해가될듯한념려가잇서 중지하기로하엿슴니다 그리유는 가정에무삼필요의한일이라든지 이상에말삼한 유인(誘因)이잇슬째에 일부러이증세를낫타나게하여서 집안을소란하게만드시는 부인들을혹시볼수잇는것인까닭입니다

이와가튼병은 치료하는법에도 여러가지가잇서서 먼저그원인이나 유인을업새여버리는것은 얼마나조흔 큰치료법이러니와 그들재로는 병인의교양(敎養)과의지(意志)주위환경(周圍環境)리타여러가지 조고막식한 몃가지사정에 따라서 치료의방침이 다른것이니 『히스테리―』에걸린 엇던부인에게던지 똑가티적용할만한일정한 법측은업는것입니다

명주쌜때와 보이루쌜때

◇모직물을쌜때◇ 모직물(毛織物)과명주가튼것을 쌜때에 물이두되다섯홉에대하야, 『그리세링』을큰숫가락으로 한아푸러서 수도물가튼물노싸시면조켓슴니다

◇보이루◇ 보이루와 『조젯』종류를쌜때에는가우물먼저 쓸는물에다너어서 좀따스하게한후에베면잘 베여집니다

◇兒童欄休載◇

백일해와 어머니존충

문 一、사세된어린것이백일기침을하는지가 월여에 주사와 신약과한약을 만히복용시켓스나 조금도낫지를아니하며 코피와지다수이출혈이되엿사오니 흥은생명에관계는 되지아니하며 또는백일을채야기침을고만두는지요 그리고장래에폐병은 되지아니합니가 조흔약이잇거든 속히하교하시옵소서 一、산모가존충이잇는데 어린아이에 엇더한영향이잇는지요 존충물살제는유도에관계되지아니하는 약이무엇잇지 자서히하교하야 주시요 (仁川담담생)

답 백일해는 병명과가티한번발생되면 오래경과함을이름이니 초긔에속히진단을하야적절한치료와 커치를하면 속히 치료할수잇고 폐염이나위장병이병발되지아니하면 생명에는 관계가업고 의사에게 자조진찰을하야 감시를하야가면 페결해로변하는일은업습니다 가정치료는 곤난한병이오니 병원에가서 의사의지도대로치료를바더야합니다 수유(授乳)긔에는 촌충약가든것은 피하는것이조흐니 촌충약으로 사용하는면사워과사는산모가복용하면 그얼의것을동하야 유아에게가서 중독을 일으킴념려가잇스니 첫돐에인후에구충함이조켓슴니다 (齋藤博士 任明宰)

人形의 집을나와서

[一名 노라의後日譚]

蔡萬植 作 吉鎭燮 畵 【77】

백색노예 (三)

『실혀요 가난이 실혀요 무 대답이 들녀오나하고잇든 노―라는 부지중에 허를 설섯다

『가난이 그러케 실흐냐?』

『실타는것보다 견델수가 업서요. 오라버니도 아시다십히 제가 몸이 허약해서고 된일은 못하지요 자식들은 자라나는데 맥이고 입히고 공부도 식혀야지요 무얼가지고 어떠케해요? 혹 어려부터 고생에 쯔들엇다면 모르지만 어머니아버지모시고 살쇄는 언제 손쇠를 어나 못처보앗서요? 그러다가 저어에비하고 결혼해서 고생을 시작하다가 혼자된 요 멧해는 참죽을고생 다햇답니다 더 견데겟서요 못견델뿐 아니라 오라버니한테니 말슴이지 넉넉하고 편하게 살고십허요 ―제발좀……남이잘입고 잘먹으면서 호화롭게사는것을 보면 부러워 죽겟서요……죽은 사람한테 의리를 직히게 어데잇서요? 첩이면 어때요? 정조를강제하는것은 녀자를 구속하자는 녯날도덕의 도구가아니여요?……글세 오라버니 이걸보셔요 우리 사랑채에 전세로 들은 녀자가하나잇는데 시골서 의동생이라 지하는 소박데이 하나를데리고 왓서요 그런데 그러던가 그색시 남편이 오고 또 새로 결혼한녀편네가와서 야료를노코 갓는데……』

『왜 야료를노아?』

『그 사내가 큰녀편네 한테 다닌다고 자근녀편네가 강쌔가나서 달녀와 가지구는 큰녀편네를 물어뜻고 욕을 햇서요 그러니까 사내는되려승겁게 큰녀편네머리채를 잡어 내동댕이 처면서 욕을하겟지요 그런데 그날저녁에 부억 들보에다 목을 매고 죽엇서요……에구 끔찍해!……글세 그런 못생긴것이 어데잇서요? 왜 죽어요? 그까진 사내녀석 보아란듯이 이혼을 해주고 번사람을 어더서 버젓하게 살잔쿠!……거 묵은도덕의 노예가 아니유?』

『그러라고 볼수가잇지』

노―라는 슬픗이 결이낫다

옥순이는 가령 묵은도덕의노예라고 한다 치더래도 그것을 비방하고 잇는사람은 돈에 팔니어 가는것이아닌가? 그러면서 무얼 남더러 못생겻니 어리석으니 할게 업지아니한가!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게속이되엿다

『그래 묵은도덕에 억매어 그것이 식히는대로 생사를설니는 사람은 봉건도덕의 노예라고 볼수가잇고 또돈에억매어 돈이 식히는대로 몸을 굴니는사람은 상품경제시대의 노예라고 볼수가 잇고……』

노―라는 이말이 고수하엿다

『그러치만 나는 내 자유로 하는건데……』

『그거야 자유겟지……그러치만 그건 노예가 되는자유』

『자유면 자유고 노예면 노예지 노예가되는자유―난 그런 어려운말은 몰나요』

이말이 노―라에게 역시어려운말이다 그는

『노예가 되는 자유……노예가되는 자유』

하고 속으로 되푸리하여보앗다 알뜻십고 또 성희이처질설명하는 적절한말인것가튼데 그러나 막연하여 그 참뜻은 해득이 아니되엿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거 저런것을 도라보잔코 서씨한테도 간다고 그리자……그러면 지금 네가 생각하는것가티 그러케 여의하게살어가게 될줄아니?』

『아니될건 무엇잇서요? 그사람은 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잔코 나를 사랑한다니까 사랑밧고 잘살고 조찬하요?』

『글세 그러케 잘될것만 생각을 하지말고 잘 못될것도 생각을 해봐야지……자― 생각을 해보란말이야 네가지금 이 궁성에 빠저가지고 그사람에게로 갓다가 다행히 오래도록 잘살면 어어니와 그러찬코 얼마 지내다가 저편에서 타차버리면 어쩔테냐? 지금은 그래도 ××와 사회의 동정이나잇자 그러나 그러케되고나면 돈을바라고 군수희를 컨당국정이의 세헌으로갓든 너를 누가 들여보기나 하겟니?』 거 잠잠하니 아모소리도 몸니 지아니하다

乳東流花の親王 松の音キャラ

奮發の九月號・婦人俱樂部

別冊附錄 家庭 西洋料理全集

▲全部實驗ずみで誰方にもすぐできる大全集
▲材料別でトテモ便利重寶。今迄にない編輯法
▲手近にある材料で、驚くほど美味しくできる
▲四百二十六種の作り方を全部圖解入りで發表
▲食事作法・食品常識・お料理用語辭典など添附

別冊附錄 秘傳公開 美味しいお漬物八十種
お漬物の美味しいつけ方の秘訣を精しく公開した、今までにないお漬物全集。これさへあれば誰方でも、家庭で樂々とお漬物屋さん以上につけられます。西洋料理全集と併せてぜひ〳〵毎戶にお備へ下さい。

漫畫繪本『凸凹黑兵衛』
田河水泡先生の面白い色刷り漫畫

女學生の『戀愛遊戲』と親への警告 座談會
最近頻々として起る女學生の不祥事件に就いて、各界の六權威が、年頃の子女を持つ親御樣方に與へた警告!

小兒科五博士解答 弱い子を丈夫にする法
夏から秋にかけて特に注意せねばならない愛兒の健康を氣遣はれる方は、何はおいても見るべき特別記事!!

婦人の再婚問題についての座談會
權威ある先生方が親身になつて心から同情と指導と光明を與へられた名記事!しみじみと胸に響く尊い記事

▲産婆を志す人の手引…岩崎直子
▲赤毛薄毛禿頭を治した體驗
▲女手で出來る內職の相談會

名歌手 藤山一郎物語
『酒は淚か』『丘を越えて』等で一躍流行歌界の寵兒となつた藤山一郎さんの淚のロマンス!!

カメラ訪問 人氣花形百人集
映畫レヴュー舞踊音樂界等々各界の花形を特寫した堂々九十頁に涉る眼も欺く美麗大畫報

▲私が再び女に還る日・川島芳子
▲八丈ケ島『島の娘』の座談會
今迄何處にも發表されなかつた彼女の心境を特に發表 鳥も通はぬ八丈島の娘さん方の心いき御覽下さい!!
▲五十圓以下の生活者の家計
家計の繰廻し方の秘訣を發表した二女性の尊い體驗談

時事問題 早わかり
北滿鐵道賣買のいきさつを詳說した名記事
▲月經時の身嗜みと美容法
▲夏物の上手なしまひ方

特輯 初秋向き新型毛絲編み物
▲赤ちゃん用のジャケツトと帽子
▲二三歲男女兒用スポーツドレス
▲スポーツ型五六歲男女兒用スエーター
▲十一二歲女兒用半袖スエーター
▲モダン好み女學生用袖なしスエーター
▲スマート婦人女學生用半袖スエーター
▲斜めレース婦人女學生用半袖スエーター
▲變り模樣の婦人女學生用ブラウス

現代小說 女の友情…吉屋信子
滿天下の女性の血を唸らせた稀世の名篇 九月號俄然最高潮!!
戀愛小說 月よりの使者…久米正雄
現代小說 明麗花…菊池寛
時代小說 紅繪草紙…佐々木味津三
ユーモア 愉快な溜息…サトウハチロー

大懸賞 高級蓄音器 三百五十台 贈呈
詳細は本誌に發表

洋服の上手な繰廻し方
古くなつた婦人服、少女服、背廣服など、これさへ心得てみれば新しい服として充分利用てきますので大評判!

定價 五十錢 (送料二錢)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一〇九三〇)

前室所生을 打殺한 惡毒한 繼母運盡

虐待끗헤 打殺暗葬하엿다가 警察에 發覺被逮峻調

【咸陽】 지난구일경남함양군(咸陽郡)에서는 계모가 전처의딸을구타치사케 하야 암장한것을 함양경찰에발견되야 지금엄중한취조를밧는 중이라 는데이제그자세한내용을 듯건대 전긔 함양면상동(上洞) 에사는임모(任某)의처정소소원이(鄭小小元伊)(三三)는 그전실소생인복희(福姬)(三)가미워서 평소부터 가진학대와 참아말못할 매질을 가하야 오든중 지난팔일 오후구시경에 어른들이서는 아직세살박게안되는 어린복희를 무수히란타하야 그의일오전삼시경에 드되여절명케하야 그시체를 동리부근에무더둔것을 함양 경찰서원이발견하고 정소소원이를 인치취조하는일방 부산지방법원거창지청검사(井原檢事)를 권화로청하야 그사건전말을 엄중히조사중이라 한다

鎭南浦府民과 電氣統制問題

反對派와 贊成派對立 一大波瀾未免?

【鎭南浦】 서조선전긔통제문제에대하여 진남포 전긔회사에서는 근일래신중히 권형중이든바 근자에와서는 진남포부민의여론이 몰면강경하여 합동반대의공긔가 점점 농후하여저서 만일의 경우에는 시민대회까지 개최할형세이든바 십오일 아침에는 이곳저곳에서 합동반대론자들이 모히여 컴컴반대의긔세를올니는모양이며 십칠일에는 권흥길전(電興吉田)군부가래남 합동긔하여 주주총회를열고 합동에대한최후의태도를결정하리라는바 찬성파와 반대파가잇서서 일시큰파란이 잇슬터임으로 일반은매우주목중이라고한다

金剛山探勝 道路破潰復舊

委員選擧上道陳情

【內金剛】 지난사일의수재로 하야금강산의 탐승도로와 내외금강을 련락시키는 신풍(新豐)도로가 여지업시 결괴되여 교통이 곤란한중은 지재지삼 말할필요도 업거니와현하 신풍선은 겨우도보로 교통하는 외에는 완연히 교통은두절상태에 잇스며내금강으로부터 외금강을 련락하는도로도 전부결괴되여 교통이대단히 곤란중에도 비로봉(毘盧峯)의련로(縱路)는물작이에사태가나서 집은형적도 업슬뿐아니라 골작에는 바위와잔돌이태산가티 싸이여 비로봉을넘는탐승객들은 업드려 기이지안하면 아니될 형편 이라는바로약에나 부녀들은 도저히할수업는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내외로부터 몰려드는 탐승객은만산을이루는고로 내금강에서는 이에대한구체적 회의를 한결과금강산의 교통불편은 탐승객에곤난이될뿐아니라 세계의 긔절인금강산에 밋는영향이 막대한동시에 전조선적으로도 문불의악영향이 다대하다하여 이를신속히복구시키라고 상도진정키 위하여 진정위원이명은 목하상도진정중이라한다

金剛電鐵全線 完全復舊運轉

【內金剛】 긔보=금번수재에말휘리와 장안사간의 철로결괴로인하여 중강을 도보로련락시교통을련락하고잇든바전철당국에서는 주야를 가리지안코 급적공사를 진행한결과 지난십오일오후구시렵부터완전히운전이복구되엿다한다

災地榮山浦에 暴風雨또猛襲

榮山江增水十餘尺 尙今도繼續中

【榮山浦】 쯤풍우라면 누구나 소름이끼치는데 또호남선영산포에 엄습하게되엿다 지난십륙일 오후십이시부터 비가나리기시작하야 십칠일에는 폭풍우로변하야 조금도쉬임업시 맹렬히계속중이데나무가부러지는등 가두에는 사람조차다니기어려우며 영산강증수가 발서십여척이나된다 박금도 계속할으로예상되며 시긔가 농시의중요한시기인만큼 일반은 우려를마지안는다(十七日午後四時半記)

郡北面事務所 新築位置決定

【咸安】 함안군군북면(郡北面)이 폐지되여 군북(郡北)[illegible]面)에명양한 이래로 종지에면의관도가 배나더 넘게되엿슴으로 제반사무가 싸라복잡할뿐아니라 면리원으로 만히증원되여재래 군북면사무소로서는 불편을 늣기게되어 오래전부터 면사무소 [illegible] 에다 중축하자는설과 산긔지에다신축하자는설이 대치되여 오든바 지난십륙일 면협의원회에서 신축하기로 다수가결되여신긔지로서 군북역부근 삼개소에다후보지를 정하야상부의 결재를어든후에 사천오백원의 예산으로불원간 공사에 착수하리라는데 의론이분분하든 면소이전문제도 이로써일단락을 지엇다고한다

水災犧牲者 遺族救濟義捐

醴泉郡主催로募集

【醴泉】 지난사일의폭풍우로 말미암아 큰서례가된 례천군상리면고항동소사현(醴泉郡上里面古項洞小沙峴) 주민이십오명이 참혹한죽엄을 당한사건에대하야 례천군당국에서는 죽은사람의 장례비도 장례비려니와 목하잇을곳도업서 방황하고 잇는 그들의유족사인에대한적절지료비등긔를 위하야 큰문제임으로 이것을관찰하기위하야 지방유지로부터 의연금을 모집하기로 되엿다한다 뜻이잇고 눈물이잇는 지방유지는참혹한 죽엄과 불상한유족사인의 안녕을위하야 만은동정이 잇기를바란다고한다

義州食刀强盜 檢事局에 送致

【義州】 의주군고관면상고동(古館面上古洞)이십일번지 한상경(韓尙敬)씨집에 기리륙촌가량이 나되는 식도를들고 침입하얏든강도 동면로동(蘆洞)삼백륙십칠번지 리긔봉(李基鳳)(二二)은 주인다려천원내라고 위협하다가 이십오원주니서 적다고 투정하든소레 전긔한씨의가족이 달녀드는바람에 그만잡히여 송치되엿다

龍川郡廳員의 公金橫領綻露

地方課長이 出張調査中

【新義州】 최근룡천(龍川)군청학교비계(學校費係)문모(文某)가동군학교비약일천 오백원을횡령소비한 사건이 탄로되여목하평북도지방과장은 과원 수명을대동하고 룡천군청에 출장하여진상을조사중 이라는데 수일내로부정사실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리라 한다

醴泉同窓會創總

【醴泉】 례천 공립보통학교는 개교이래 이십일회의 졸업생을 내엿스나 오늘날까지 아모런 동창긔관이업다는것보다 천여명을 산하는 졸업생이 산지사방 흣터저서현금엇더한 정로를밟고 잇는지? 가튼 동창생으로서 피차의거취를 모르게됨으로 이를유감으로 생각한 제십팔회 졸업생박경수(朴景秀)외 유지의 발긔로동교동창회를 조직코저 오래전부터 준비하여오든바 그간모든 준비가 완성되엿슴으로 오는 이십일 오전십일시부터 동교강당에서 동교동창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되엿다는데 모교를 사랑하고 후진을위하는 성의를 가진 졸업생들은 하나도빠짐이업시 만이와주기를 바란다고한다

救窮事業으로 砂防工事案決議

知道面民大會에서

【陝谷】 고양군지도면(高陽郡知道面) 사무소에서는종합한 농촌의 정황을 우려하고잇는중 한강(漢江) 연안의 치수공사도 불원간맛치게됨으로업마안되는 임금을 바다가지고 생활을하든 궁민들은 더욱공황을 늣기게되엿슴에 그대책을 강구한결과십칠일 오전열한시부터 지도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면민대회를 열고 지방유지와 면민수백명이 모이여 면장조종호(趙鍾鎬)씨의 사회로 사방공사(砂防工事)일자로 가결되엿스며조성회(助成會)긔본금적립에관하야 일부의반대가잇섯스나 조면장의자세한 설명에동감되여 일치가결로련서하야 관계당국에 청원서를제출키로하고 성황리에폐회하엿다

大田記者團定總 反動團員除名

財政確立策도講究

【大田】 지난십칠일오후구시부터 조선일보대전지국 사무소에서 대전긔자단 제이회정긔총회를 대표김용선(金容璇)군 사회로개회하고 토의사항에 드러가재정확립에 대하야 여러가지로토의하다가 대책위원으로 리탁(李鐸) 송하용(宋河用) 신철(申哲)등삼군을 선거하야 일체를강구케하고 반동 회원처명의건을 회원중으로부터 제의하게되야장시간 토의한후 모보대전지국긔자 리우일(李友一)군은좌긔리유로 제명처분을 나리고지국장 방두환(方斗煥)씨는 좌긔리유로 교체를 단언거절키로만장일치 가결한후 오후십이시에무사페회하엿다 理由(省略)

刈草中言爭끗테 同伴을蹴慘殺

加害者는大同署에引致

【平壤】 대동군부산면화곡리(大同郡斧山面花谷里) 조승덕(趙承德)(二七)은 십륙일오후한시부근 산가운데서 풀을버히고잇든중 갓치풀버히든 동면화곡리(花谷里)신우관(申于館)의고용인 김학수(金鶴洙)(一七)와말다툼을하다가 급기야 김학수는조승덕의 가슴을발길로차서 당장에 죽엿다 가해자는 과실치사죄로 대동서에서취조를밧고잇다

七十老婆溺死

【豊山】 지난십사일오후세시경에 풍산군리인면사하 리박섬(六三)은 풍산읍남강에서 익사하엿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 드른면 박섬은본래 가세가빈한한중 벼맛츨풍산교 공사가시작 됨으로 거긔와서한뎨에 일건오리식하는자가리를 주다가 도라가든길에 정심도못먹고 놉은물이라그리깁지안흔 물에서싸저서 비참히 죽은것이라 한다

軌道에爆藥裝置 汽車顚覆을計劃

爆藥의威力을試하랴든것 其實은無知가나은惡戲 犯人三名犯行自白

【吉州】 철로레루에 「다이나마이트」를노아 그위력여엇마나한가를시험하려고경편긔관차전복을계획한무지한범죄소년이길주에잇다 함남북청군 리대면보홍리(咸南北靑郡里面甫興里)김태봉(金泰鳳)(二六)풍산군웅남면신홍리(豊山郡熊南面新興里)김중균(金中均)(二七)단천군용원리(端川郡龍源里)김택묵(金澤默)(一八)등세명은 수월전길혜선(吉惠線) 오공주공사장에인부로종사하든중평소에긔차나긔관차를보지못하든소년들이라어떠한괴물인가를알기위하야지난팔월일에재덕(載德)합수(合水)간경편철도간조(間組)전용인등덕곡(登德谷)부근철도레루에무게약륙관가량되는돌을두번이나노아 긔관차 전복을 감행하엿스나 운전수가이를 미리알고 미연에방지하엿는데 다시금지난칠일 오후팔시반경에 발화작업공장(發火作業工場)에서 「다이나마이트」(계란만한것)사개를도적하야가지고 장소에장치하야 긔관차오기만기달리엿든바마츰내 긔관차가그장소에 도달하자 그중케일 적은것이 폭발되야 일시대소동을일우엇스나 위력이 적엇든관계로 피해는 업섯다는데 긔관차운전수는 다시금앞에 장치한것을 조사한결과 과연세개가 장치되엿슴으로 즉시이는고의로 계획적 행사한것이라하야 소관합수(合水)주재소에 고발하여 본서기타주재소응원으로 정사복경관 수십명이현장에 쇄도하야 혈안으로범인체포에 로력하여 관계자이백여명을 인치엄중취조하엿다는데 폭발물사건인만큼 그배후에 사상적배경이나 업는가하야 불면불휴의 상태로 조사가진행되지못하든바 마침내 수사망칠월곳처최초의치석(置石)관계를보아그소년들의 악희나 아닌가하야 취조한결과 범죄내용을 자백하기에 이르럿다는데 근래이럿듯 일어나는무지가나은범죄의 연종연락하야 [illegible]의화제물이드러나고잇다고한다

鄕土古蹟巡禮

兩金君의一徒步 大阪關西大學在學中

【大阪】 생활에쪼들이어 정든고토를등지고 생활하기 위하야 로동의시장을차저서 대판에건너오는 백의동포의 수가나날이 늘어간다함은 루루보도한 바어니와 동시에배움에 주리여고학의 길을차저 대판에건너온 학생의수도 나날이 늘어간다고 들은 흑은우유배달 흑은신문배달또는 공장의직공생활을 하면서흑은 주간흑은야간으로 남는시간을 리용하야학업을닥그며 로 하긔와동긔의 휴가가잇스나 그들에게야 그립은고향의 갈수가업게되여 흑은 오년흑은십년을두고 고토를 밟지못하야 고국의 현하정상을다못 신문지의 보도되는 범위내에서만 듯게될뿐임으로 엇지실정을 볼수잇스랴 이에대하야안타가히녀여오든 고학생증관서대학 전문부법과김준옥(金俊玉)군과동교예과생김수운(金秀雲)군은 특히금번하긔휴가시십여일간을 고주의 순례(鄕土古蹟巡禮)차로 팔월십일에대판을떠나 부산지국앞에서 출발하야 중부조선일대급남부지방일대를도보로 답사의장도에 올랏다 양군은 착실청년으로대판에건너온후지금것 신문배달부로서학자를 어더가며 중학을맛치고 대학에들어가 학업을닥는 유망한청년들이다

▲巡禮地域 釜山、金海、密陽、淸道、大邱、金泉、永同、大田、新都安、論山、扶餘、公州、天安、水原、京城、利川、忠州、聞慶、醴泉、安東、靑松、盈德、浦項、慶州、蔚山、東萊等地

◇寫眞…(上)金俊玉(下)金守雲

奉天에서 라듸오體操

【奉天】 재봉학우회(在奉學友會)주최와 봉천본지국후원으로 작년부터일주간 당지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조긔체조회(早起體操會)를열고 안산(鞍山)보통학교교원 김승한(金承翰)씨를 초빙하야 「라듸오」체조를 강습하엿는데 첫날부터 남녀들이 만히모히여 일주간평균참가인수 구십여명이 란대성황으로 로뭇을 맛치엇스며 특히 첫날부터 끗날까지 근속한 륙십여명에게는 강습수료증을 수여하엿다고한다

(사진은라듸오체조광경)

留學生鄕土訪問 巡廻音樂大會

十九日夜元山에서 本報支局後援으로

【元山】 본보의 각지국 후원으로 방금가는곳마다 대성황을 일우는 동경류학생 향토방문순회음악 연주대회는 그간북조선 산지국 후원으로 회순회하고 십구일부터 본보원산지국 후원으로 원산루씨녀자고등보통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할터인데 입장료는 삼십전이라 하며 연주 악사는 테너 서상석(徐祥錫)피아노 안영자(安榮子)첼노김태연(金泰濂)제씨라고한다

鴨綠江에溺死

【義州】 의주군광평면청수동(廣坪面靑水洞)구백륙십구번지최진길(崔鎭吉)(三五)은 지난십오일십시경에 더위를견디지못하야 압록강에 나가서 목욕타가 잘못알고깁흔물속에들게되야 불행히도 죽어버렷다는바 아직까지 그시체를 찻지못하야 소관 의주경찰서에서는 방금수사에 로력중이라는데 증수되여잇는 압록강물에잠긴시체는하부로떠러가기를바란다한다

義州天道敎 地日紀念式

【義州】 천도교 의주군 종리원에서는 지난십사일이 동교의 제이세교조최해월(崔海月)신사의 승통일(承統日)임으로 당지교도백여명이 동교당에모히여 지일긔렴(地日紀念) 례식을 김자일(金子一)씨 사회와한정호(韓正浩)황승봉(黃承鳳)제씨의설교로 거행하엿다한다

楚山郡에서 阿片撲滅運動

【新義州】 초산군초산면신양촌(楚山郡楚山面新陽里)에는수년래로 아편중독자가 속출하여 그페해는 실로 다대하야 이대로나간다면 전동이전멸 상태에이를지도 모른다는바 동구장이하유지는 이를우려하여 최근아편박멸운동을 니르키여 대대적활동을개시하엿다한다

基督예수敎會 安州地方大會

【安州】 예수의생활로생활의 의긔준을삼자긔도의생명으로생명의 목표를삼자는 표어와 복음대로 신앙의자유를부르짓는 긔독교예수교회인들은 그간 장로교와감리교에서갈리여나와서따로히 례배를보기시작한지는 벌서 오랜일이엿다각처에흣허저잇는 교인들을단속하며완전한교파를 확립하여야할필요상 지난 십일부터십삼일까지 안주서부례배당에 안주지방회를개최하고 제반사항을 토의결정한중 특별히긔독교 예수교회간부급에서 제청한 헌장급시행세측을 통과시기는동시에 리룡도목사를사사(士師)로 취대키로결정하엿다고한다

運動競技

全朝鮮一個人 庭球大會盛況

【長箭】 본보장전지국주최와 시민유지의 후원으로 제일회전조선 개인정구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삼일 오전십일시부터 당지보통학교 코-트에서 경기를시작하야 삼십여군의 참가로 백열전을계속하야 최후의승리는 자산 리해수(慈山李偕洙) 김동식(金東湜)량군에게로 도라갓다고한다

朝鮮神宮競技 第一回豫選戰

【原州】 긔보=조선신궁경기대회에대한 지난팔일로 연긔되여 원주고보교정에서 사군선수백여명이 련합하야 대성황으로 진행된바 입선자는 아래와갓다

百米 一着 辛在九 二着元命吉 三着 陳吳岩 二百米 一着辛在九 二着南基奭 三着朴台熙 四百米 一着 朴鍾善 二着 尹衡重 三着 權寧基 千五百米 一着 金學奎 二着 黃龍文 三着 [illegible]甲成 一萬米 一着 申相基 二着李開東 三着黃龍文 走幅跳 一等辛在九 二等元命吉 三等張汝舟 走高跳 一等朴聖俊 二等元命吉 槍投 一等陳吳岩 二等吳庚善 三等鄭鎔鑾 砲丸投 一等陳吳岩 二等[illegible] 三等崔斗星 庭球 一等秋秉琥 卓球 一等張基鎬 二等姜善[illegible] 二等李英順 一等金雨奭 二等

慶北庭球大會 本報支局後援

【尙州】 경북상주청구구락부 주최와 본보상주지국 후원으로 [illegible] 상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는데 [illegible] 입일이오 당일개회전까지 신청하면 조타고한다

個人庭球大會 優勝은光州軍

【長城】 긔보=장성에서 경성에류학하는 학생들로 조직된 한우회주최와 동아조선 조선삼지국 장성청년회후원으로 지난십삼일 오후 령시부터 남조선 개인정구대회를 개최하엿섯든데참가는 사십일팀이나되여 당일에 경승을못하고 십사일오후 다섯시반에 야백열전한 관중의 아우성소리와 함께 우승은광주 이동근권봉규군으로 결승전을 맛치엇다한다

金剛山一徒步 探勝隊員通過

【通川】 평양숭인 상업학교 체육부 주최의 도보금강산탐승대는 탐승을 맛치고회정하는도중에 일행십일인은 지난십삼일오전십시에 본보통천지국을방문하고 원산으로 향하야출발하엿다

◇訂正 八月十二日付本報朝刊第四面記事中『反戰事件의韓鳳三長逝』란題下의記事中『擧行하야야다한다』는『擧行한다고』의誤植이기茲에訂正함 朝鮮日報社密陽支局

地方人事

▲元鍾億氏(海州地方法院判事)今番平壤覆審法院轉勤人事次本社海州支局來訪
▲金相進氏(本社中和支局長)因病療養中八月十三日逝히永眠
▲大森茂樹氏(郡北郡長)新任人事次本社成安支局來訪
▲金永錫氏(水原郡農會技手)抱川郡産業技手轉勤人事次本社水原支局來訪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北倉支局 位置 孟山郡北倉面 支局長 朴用玩
延安支局 位置 延安郡邑內 支局長 李成徽
陝川支局 位置 陝川郡草溪市 支局長 鄭斗錫
慶州支局 位置 慶州郡邑內 支局長 孫達鎭
龍仁支局 位置 龍仁郡邑內 支局長 閔東植

謹告

北倉支局 總務兼記者 李錫熙 記者 徐春旭 顧問 徐鳳球 顧問 朴應奎 右와如히新任함
龍仁支局 記者 禹鍾南 右와如히新任함
新市支局 總務 元勳 右와如히新任함
求禮支局 會計 安斌吉 右와如히新任함
求禮支局 記者兼會計 宜東基 右解任함
新市支局 記者 吳學律 右解任함

白川 全白川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二十日午前九時
△場所 白川俱樂部코-트
◇主催 白川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白川支局

鎭川 小學庭球大會
△時日 八月廿七日午前十時
△場所 鎭川公園코-트
◇主催 鎭川留學生學友會
◇後援 朝鮮日報社鎭川支局

伊川 伊川染色講習會
△時日 自八月十七日至同廿一日伊川公會堂에서 自八月廿二日至同廿六日支石公普校에서 及 自八月廿七日至同卅一日佳麗州公普校에서 自九月二日至同九日安峽禮拜堂에서
◇講師 鄭河普氏(聽講無料)
◇主催 伊川郡廳、伊川、安峽、支石三金組
◇後援 東亞、中央、朝鮮、每申四支局

洪原 北朝鮮脚戱大會
◇時日 昭和八年八月二十六七八三日間
◇場所 洪原邑鄕校洞脚戱場
◇主催 洪原市民一同
◇後援 東亞中央朝鮮三支局

第三回 全朝鮮水上競技大會
△日時 八月二十六日(土)
△場所 大同江特設水泳場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平壤支局

史話 雲峴宮의봄 61

琴童作 芝山畫

八의十

그런지라 옛날 문종과 단종의 때를지나서 리씨조선중흥의 현군 세조께서 동국을 하시고 세조께서는 무농하고 무척하고 지법 권세만 자랑하자는 모든 왕족이며 대신을 모조리 업시할 써에 도양녕대군은 그회를면할뿐아니라 라틀이게실죄마다 세조께서는 친히양녕대군을 차즈서서 그의견을 뭇자온것이엇다 치인이란 일커름을 듯고글을 실혀하엿다는 긔록을 남긴 양녕의 『숭례문』 현판의 필적은 뚜렷이 이 도시의출입구인 남대문에 걸려서 이래四백년간 그 아래를 통과한 수억만 사람에게 그 호활한 필적을 자랑하는 것이엇다

황혼의 남대문을 장식한옛날 현인의 필적을 우러러볼동안 젊은 성하의 눈시가에는 감격의 열븐 눈물까지보엿다 치인의 행세를 하고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여 그 한 세 생애를 모호히 한 넷날 현인 양녕대군의 필적을 우러러 볼때에 성하의 머리에 다시금 써오르는 것은 흥선의 인격이엇다 양녕이 미친 행세를 할써에 뉘라서 그것을 한낫 연극이라 간파하엿나 『讓寧雖失德廢嗣 晩年能隱時自晦』라 하여 젊은 시절의 실덕을 모든 사가는 시인하엿다 그것을 연극으로 보지안핫다

『술맛나니』 『주책업는 월불』 『투전군』 『비루한 사람』 『치인』 『상가시집 개』 이런 수업는 창피한 명칭으로 불러우면서도 그래도그것을 실타하지안코 그냥 지근 지근 대관들을 차저다니는 흥선은 사실에 잇서서 치인으로는 볼 인물일가? 혹은 넷날의 양녕과 가터 어떤 필요상 자긔의 신분과 패기와 포부와 심경을남에게감초기 위하여—그러고 감흥으로서 자긔의 일을 성공시키기위하야 세상을 모호히하는 술책으로 볼것인가

—대감 대감의 심정을이 성하에게뿐은 감촉업시 알려주십시오 성하는 령리하옵니다 령리하면서도 또한 신과의를 지킬줄을아옵니다 지금 상서롭지못한 세상—종실의 권위는 발아레떠러지고외척의 권세를 잡고 그방자난행의 회 처들삐문에 三천리의 강토와 二천만의 생령은 도탄의 괴로움에서 우옵니다 종실ㅅ가운데서 한 현인이 나타나서 큰 징결을 하지 안흐면 가까운 장래에는 이 나라가써거 업서질 모양이옵니다

—대감 대감은 과연 현인이옵니까? 흥은세상이 인정하는배와 가치 한개의 치인에 지나지 못하옵니까? 만약 대감으로서 사실에 잇서서 현인이시옵고 지금의 대감의 하시는 일이 모도신분을 모호히 하시기위한 술책이시라면 성하에게 뿐은 대감의 심정을 알려주십시오 대감의 비록 어리고 무력하오나 대감의 아페서 최후의힘까지 다 쓰오리다

황혼의 남대문—벌서 꽤 어두워서 눈에 힘을 주지안흐면 잘 보이지 안는 현판을 우러러 보며 성하는 얼싸진 사람 모양으로 우뚝하니 서 잇섯다 넷날 현인의 휘호한 활달한 필적은 조 성하의 마음을 알아 오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커다라케 걸려서 그 四백년에 가쳐운 세월을 자긔의 아래를 통과할 수업는 사람을 굽어본 그 무포청한 태도로 성하를 굽어보고 잇섯다

큰 방각이나 그아래 서잇다가 성하가 자긔의 무거운 발자욱을 옛일 배는 성하의 량 생에는 희미하나마 눈물의 흥분 자취까지 잇섯다

十五만의 인구를 감춘장안은 고요히 고요히 밤의장막안으로 기어 들어갓다 벼개되려는 이세상—밤은 차차 깁